

# 21세기(世紀) 문식성(文識性)의 특성과 문식성(文識性) 교육의 과제 \*

박영목(朴泳穆, 홍익대 교수)

<目次>

- I. 문식성(文識性)의 개념
- II. 21세기 문식성(文識性)의 특성
- III. 21세기 문식성(文識性)과 읽기 교육의 과제
- IV. 21세기 문식성(文識性)과 쓰기 교육의 과제
- IV. 문식성(文識性)과 격조(格調)

## I. 문식성(文識性)의 개념

문식성(literacy)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적 의미에서 문식성은 특정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일련의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의 추상적 집합과 연관을 맺는다. 그리하여 일상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문식성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을 명백하고도 당연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문식성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속성을 경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문식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미궁(迷宮)을 초래하게 된다. 문식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역사적 문식성, 윤리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경제적 문식성, 사회정치적 문식성, 환경적 문식성 등이 문식성 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식성이라는 말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문식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식성의 효과나 결과를 문식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Graff, 1995). 어떤 인지적 속성이나 기능이 문식성의 습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자는 문식성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반세기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에 대하여 문식성 연구가들은 의욕적으로 도전해 왔다.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에 대하여 문식성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가? 어떤 사회나 문화에 있어서 문식성은 극적인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결과물인가? 어떠한 사회적 목적 혹은 사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식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는가? 개인의 발달과 인지에 대하여 문식성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영향은 학습 환경에 기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읽기와 쓰기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결과물인가? 사람들이 문식적 활동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과

\* 이 글은 박영목의 문식성에 관한 기존 논문(2002, 2003, 2005)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논문으로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08. 5.)에 게재 논문임.

연 가능한 일인가?

문식성의 개념을 탈맥락적인 기능의 추상적 집합으로 보게 되면 교육체제나 사회체제의 실제적 특성과 괴리되는 부적합한 모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부적합 모델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읽기 지도 프로그램이나 쓰기 지도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문식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언어 사용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소홀히 다루게 됨으로써 문식성의 실질적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Gumperz, 1986).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표준적이고 절대적인 담화와 다른 맥락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담화 사이에는 현격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실증주의적 모형에 바탕을 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문식성 평가는 학생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문식적 기능을 습득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의 문식성에 대한 연구는 문식성의 다층적 측면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의 상호교섭적 측면을 밝히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리고 문식성 연구의 주요 업적들은 사회언어학, 문화기술학, 문화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Bazerman, 2008). 이들 연구로 인하여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이데올로기 맥락의 상호교섭 작용 내에 존재하게 되는 문식성의 복합적 특성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 속에 반영되게 되었다. 읽기와 쓰기와 같은 문식 활동은 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위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Street, 1995). 어떠한 문식성 이론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 체제 내에서 복합적·다층적 문식성을 강조하는 일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신장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문식성은 단순히 어떤 특정의 텍스트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문식성의 인지적 결과에 대한 탐구도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으로 조직된 활동의 영향에 관한 탐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Scribner & Cole, 1981). 또한, 문식성은 가정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일차적 담화의 조정 능력이라기보다는 학교나 직장이나 학문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차적 담화의 조정 능력으로써 상위인지적 능력 혹은 상위언어적 능력과도 직결된다. 문식성은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의 읽기와 쓰기와 연관되는 사고의 양식임과 동시에 목표 지향적인 활동임과 아울러 사회적 맥락과 언어 사용 활동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Langer, 1987).

## II. 21세기 문식성(文識性)의 특성

### 1. 21세기 사회의 특성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연장선상에서의 예측 가능한 변화가 아닌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산업 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과 정보와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되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과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실질적인 정보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 (과학기술부, 1999)에 의하면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전자정부가 구현되

고 기업은 지식경영체제로 전환되며, 인터넷투표와 사이버거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활동과 시민모임 등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정보화가 확산될 것이다. 둘째, 주거, 근무, 학습, 여가 선용과 취미 활동 등 개인생활 전반에 걸쳐 성숙된 정보 활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재화에 기반을 둔 양적 생산 중시체제에서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질적 생산 중시체제로 변화하고, 하이테크 서비스와 지식노동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초고속정보 통신망과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 마인드의 제고, 정보 문식성의 향상, 지식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할 것이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 등 새로운 지식 전달 수단이 첨가되면서 인간 두뇌 작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됨과 아울러 새로운 가치체계가 출현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통의 사회 규범과 가치 아래 사회적 합의를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던 집단 중시 사회에서,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개인마다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출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질적 부'로부터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전할 것이며, 개성화와 다양화의 진전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안락하고 자동화된 주거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방송, 교육, 근무, 취미활동 기법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도덕 중심의 사회규범이나 집단 중시 원칙보다는 논리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다. 셋째, 의식구조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와 독신 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 관계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사회의 출현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확대와 과학기술과 생명, 윤리, 안전성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2.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문식성

2002년 3월 7일과 8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Bertelsmann 재단과 AOL Time Warner 재단의 주관으로 '21세기 문식성 정상회의' (21st Century Literacy Summi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독일의 쉬뢰더 수상, 스페인의 아즈나르 수상, 미국의 엘브라이트 전국무장관 등을 비롯하여 세계 35개국으로부터 300여 명의 정책수립가, 최고경영자, 매체전문가, 문식성 관련 분야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1세기를 위한 Digital Literacy 기능의 전 세계적 개발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정보화 시대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교육, 직장생활, 시민생활의 세 영역에 걸쳐 제시하였다.

21세기 문식성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백서에는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1세기적 학습은 비단 학교나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학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등장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습자의 자기 규제적 학습이 점차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환경이 민주주의의 신장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는 인터넷 접속의 용이성과 사용의 편의성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전자정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과 의사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와 연관되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텍스트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등의 전통적인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책,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의 전통적인 매체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하여 재형상화되고, 간편하게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와 함께 21세기의 문식 사회에서는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읽기 활동의 경우에 있어서 문어매체에 대한 읽기 기능이 여전히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21세기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들은 그림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의 형식을 취하거나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적 특성에 적합한 읽기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적 기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기술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과 학습의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직업과 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21세기의 문식성은 기술적 문식성, 정보 문식성, 매체 창의성, 사회적 능력과 책임 등의 4가지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21st Century Literacy Summit, 2002). 기술적 문식성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에 접근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정보 문식성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타당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맥락에서 활용하고, 수집한 정보의 연관성과 질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매체 내용의 생산과 보급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체 창의성은 학습과 직업생활과 시민생활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써 매체 내용을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능력과 책임은 매체 사용자로서 정보를 선정하고 여과하기 위하여 적절한 도구와 지식의 보유, 그리고 매체 생산과 보급의 사회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 등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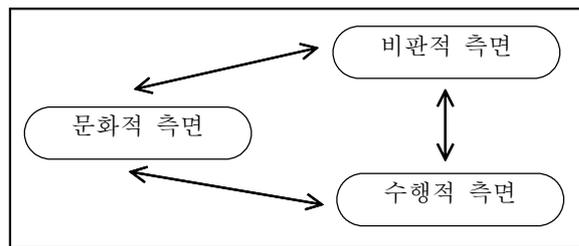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21세기의 사회에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의 내용 또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크게 확충되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와 능력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필요한 학습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주어진 정보를 조절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경험을 재구조화하고 재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에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되었다.

### 3. 문식성 교육의 세 측면

최근의 문식성 연구와 문식성 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설명 및 관점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매체 문화 및 정보와 소통에 대한 최신 기술의 명시적인 관여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 부문과 사회 부문에 있어서 매체와 기술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형식과 국가 간의 역동적 소통과 교환 등이 지니는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증대된 의식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식력과 정보 기술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기술 중심주의 경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컴퓨터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전문 기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됨으로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 문제 등과 직결되는 학습 활동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식력과 정보기술과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언어와 문식성과 기술 학습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 의존적 사회적 활동 모형’ (situated social practice model)이 각광을 받고 있다 (Durant & Green, 2001). 이 모형은 담화와 그 활동에 대한 비판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상황 의존적이고도 실제적인 학습과 문화적 체험을 강조한다. 이 모형에서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식력과 정보 기술 학습의 세 측면을 수행적 측면, 문화적 측면, 비판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식력과 기술 학습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능력과 기능적 문식력으로 대표되는 방법적 지식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문화와 역사와 힘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러한 방법적 지식을 맥락화 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형은 맥락과 맥락성과 맥락화 모두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식과 기술에 대한 총체적 문화적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세 측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다른 측면에 비해 더 중요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1> 문식성 학습의 세 측면

문식성 학습은 수행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 수행적 측면에는 문자의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 문자소와 음소의 대응 방식과 대응 정도에 대한 이해, 표기 규칙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 글씨쓰기와 컴퓨터 자판 이용하기 등이 포함된다. 정보기술 학습의 경우에는 컴퓨터 작동, 인터넷 접속, 데이터베이스와 시디롬 검색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식 활동과 문식 학습이 단순히 언어와 기술 체계를 작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 이상의 것으로서 그러한 작동 능력이 실제적 형식의 의미 구성 활동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 과 일상생활 맥락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살이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이용하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CT 문식력 학습에서는 학습의 목적과 실제적 맥락과 형식 등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의미 있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판적 측면에서는 맥락과 역사와 힘에 대한 명시적 고려가 중시된다. 즉, 학교에서의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언제나 사회적이고도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어떤 사회적 분야의 축을 따라 구성되고 사회 조직과 힘의 주도적 원리에 따라 구조화된 것이다. 오늘날 교육과정 개발과 개정의 주된 관심사는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 요구와 흥미를 더욱 적절하게 표상해 내는 데 있다. 문식 학습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은 건전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소프트웨어와 다른 기술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고 관련되는 문화 활동에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평가하고 재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학습이 언어 자체의 학습, 언어를 통한 학습, 언어에 관한 학습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학습 역시 기술의 이용 방법과 직결되는 기술 자체의 학습, 기술을 통한 학습, 그리고 기술에 관한 학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식력은 언어와 기술과 학습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식 학습의 세 가지 측면 모형은 문식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수행적 측면은 기술적 기능과 방법적 지식 등을 포함한다. 수행적 지식은 문식 활동 및 학습에서는 물론이고 정보기술 활동과 학습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며, 나아가서는 문식력과 기술학습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과 지도는 언제나 상황 의존적이고 생산적이며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효과를 생성해 낸다. 이와 관련하여 문식 학습 세 측면 모형을 교실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식력과 기술 정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이 증시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활동 공동체 내에서의 실제적인 의미구성 활동과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활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학습과 교육의 초점은 학생이나 학교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 제도 내에서의 복합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인간 생활에 두어져야 한다. 둘째, 수행적 측면과 관련하여 특정 담화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중심으로 문식력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비판적 측면의 경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교육적 활동은 그것이 비판적이기 이전에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어진 활동 공동체의 유식하고도 효과적인 인사이드가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활동과 실제적인 학습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 4.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문식성

훌륭한 국어 교사는 새로운 기능과 지식의 가치 및 그 상관성을 학생들이 발견하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사소한 정보와 깊이 있는 정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흘러넘치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기능과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이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의 구성, 세상과 교실 사이의 다리 놓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학생들의 실제적 학습 경험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 교사 유식한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기호 부여하기 등과 같은 21세기적 학습 맥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 내용의 구조화를 위하여 생활공동체와 현대적 직장으로부터 실제적 예와 그 적용 및 맥락을 도출할 수 있다. 교사는 공동체로부터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실 경험을 확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공동체를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상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술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심층적 탐색

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습에 관한 한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의 학습과 교실 바깥에서의 생활 사이의 연관성을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참여, 동기, 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의 맥락에서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관심과 지역적 요구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21세기의 교육 내용은 21세기 공동체와 직장 및 가정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지구적 의식, 경제적 문식력, 시민적 문식력 등 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범지구적 의식은 세계적인 주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다. 범지구적 의식을 통하여 학생들은 장차 개인적 직업적 공동체적 맥락에서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의 정신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개인들로부터 배우면서 협동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범지구적 교역과 연관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더 다양해지는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기술은 지리적 경계와 시간적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협동과 의사소통은 이제 보편적인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다른 문화, 나라, 지역 사람들의 사고와 동기과 행위에 대하여 점점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범지구적 의식은 공동체와 직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와 수용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범지구적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산출된 다양한 관점의 복합적 수용을 통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적 문식력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능력이며, 경제의 역할과 경제에 있어서의 직업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경제적 문식력은 조직 맥락 내에서 생산적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1세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적 환경과 직업적 환경 내에서 자신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대단히 복잡한 경제적 상업적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들의 생활을 형성하게 될 경제적 힘, 직업 정신, 상업적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나의 수행 능력이 내 직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속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경제적 상업적 문제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경력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재정적 경제적 직업적 문식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재정 문제를 더욱 잘 관리하게 하고 그들 자신의 직장에 더욱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 준다.

시민적 문식력은 정부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민적 문식력은 시민적 의사 결정의 지역적 시사점과 세계적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한 시민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21세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1세기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유식하고도 책임 있는 시민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시민적 문식력은 정부와 공동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분석과 참여를 도와줄 수 있다.

학교는 21세기의 내용을 교실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과목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들 내용을 형식 과목과 융합하여 맥락 중심의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정보소통기술(ICT)이 급속

하게 발전하면서 ICT 문식력이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식력으로 등장하였다. ICT 문식력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하고 평가하고 창안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소통 도구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ICT 문식력이 일상적 기능에서부터 전문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연속체로서의 개념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접근, 관리, 통합, 평가, 창안 이라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이들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증대되는 인지적 복잡성 계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지식과 기능을 드러낸다.

경제, 기술, 정보, 인구, 정치 등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작업 방식과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되어 왔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직장, 사회공동체,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교도 생활 조건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교육체제는 학생들의 생활 방식과 학습 방식 사이의 간격을 좁히지 않는 한 비상관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 바깥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생활방식상의 놀랄만한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은 장차 성인이 되어 복합과제, 기술 중심, 다양성, 역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세계에 대한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관하여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인간 정신의 주요 영역을 표상함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금 학습의 인지적 과정, 학생들을 학습에 몰두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도 전략, 학생들의 성취동기 강화 전략 등에 관하여 교육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과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21세기의 문식력은 기본적인 독서 쓰기 셈하기 능력 이상의 것을 뜻하게 되었다. 21세기의 문맹은 단순히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수 없거나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학습 기능 연구위원회’(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Skills, 2005)에서는 21세기 학습의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핵심 내용 강조, 학습 기능 강조, 학습 기능 개발을 위한 21세기 도구의 활용, 21세기 맥락에서의 교수 학습, 21세기 내용의 교수 학습, 21세기 기능 측정을 위한 21세기 식 평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 기능과 21세기 도구의 통합, 즉 학습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21세기 도구의 이용 방법을 아는 것이 ICT 문식력의 핵심 요소이다. 많은 학습 기능들은 면대면의 사회적 상황이나 직장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는 거의 무관하다. 반면에 ICT 문식력은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인의 디지털 보조 자료를 통한 개인적 책임감의 현시 등과 같은 학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기술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ICT 문식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십, 강력한 기술 인프라 구조, 학교에서의 기술과 인터넷에의 적절하고도 균등한 접근, 기술과 교실 학습의 통합, ICT 문식력의 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법 등이 필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ICT 문식력을 갖추게 하는 일은 핵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실, 교육자와 경영자들 중에는 ICT 문식력 교육을 핵심 과목교육과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능한 교사들은 학습 기능들과 교수 전략들을 적절하게 통합한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교실 수업의 과정에서 21세기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위한 역동적 교육을 창출하기 위하여 학습 기능과, 21세기 도구와 핵심 과목 내용을 통합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다음 <표 1>은 ICT 문식력의 기본적인 골격을 나타내고 있다 (International ICT Literacy Panel, 2004). 학습 기능은 사실 21세기 도구와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술의 사용 없이도 의사소통을 하거나 협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기능들은 점점 더 학습 기능 학습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표 1> 21세기기능을 고려한 ICT 문식력의 기본 골격

학습 기능 +	21세기 도구	= ICT 문식력
학습 기능	21세기 도구	ICT 문식력
사고 기능과 문제 해결 기능	문제 해결 도구 (스프레드시트, 의사결정 보조 장치, 설계 도구 등)	복잡성 관리, 문제 해결, 비판적 창의적 체계적 사고 등을 위한 ICT 활용
정보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과 정보처리와 연구를 위한 도구 (워드프로세싱, 프리젠테이션, 웹 개발, 인터넷 검색 도구 등)	정보의 접근, 관리, 통합, 평가, 창안, 소통을 위한 ICT 활용
상호작용적 기능과 자기주도적 기능	개인 발달과 생산성을 위한 도구 (전자 학습, 일정 관리, 상호작용 및 협조를 위한 도구 등)	생산성과 개인적 개발의 촉진을 위한 ICT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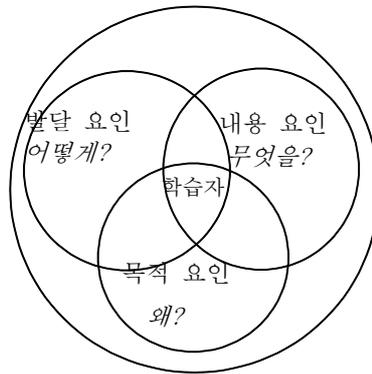
### Ⅲ. 21세기 문식성(文識性)과 읽기 교육의 과제

#### 1. 읽기 학습의 구성 요인

언어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게 함과 아울러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용한 도구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기본적 도구이고, 우리의 문화를 규정짓는 특성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다. 언어는 상상적 행위로서 우리들 각자의 상상과 경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성해주는 수단이다. 동물의 신호 체계와는 달리 인간 언어의 메시지는 복합적인 수준에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 개인이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문장을 발화할 때, 열 사람의 청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각자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의사소통과 협동과 논쟁을 무리 없이 해 나가게 된다. 의사소통의 방식과 정보의 습득 및 지식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 능력으로서의 읽기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는 일은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Erwin, 2007).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을 위한 언어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읽기 활동 능력에 대한 기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의 시민들이 자신의 사회와 직장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읽기 활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에게는 1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을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읽기 활동 능력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는 물론이고 영화, 텔레비전, 상업적 및 정치적 광고,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언어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적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읽기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 활동 능력의 학습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읽기 활동 능력의 학습은 내용, 목적, 발달, 상황의 네 가지 특징적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인은 읽기 활동 능력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읽기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의 결정은 읽기 활동 능력 학습의 네 가지 요인, 즉 내용 요인, 목표 요인, 발달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2>는 읽기 학습의 구성 요인을 IRA와 NCTE(1996)의 ‘언어학습 성취 수준 모형’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 읽기 학습의 구성 요인

읽기 학습의 구성 요인 중에서 내용 요인은 학생들이 읽기교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와 연관되는 요인이다. 읽기교육의 내용은 문어와 구어와 시각 텍스트에 관한 지식은 물론 그러한 텍스트를 창안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읽기 활동의 과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읽기교육의 내용은 개인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식과 연관될 수 있다. 주어진 언어 활동 상황에 따라 개인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이 결합될 수도 있다.

목적 요인은 학생들이 읽기교육의 내용 요소들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언어 사용 활동의 바람직한 결과, 동기, 이유, 목적 등과 연관되는 요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표출하기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관찰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미적 경험을 향유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언어 사용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은 인간의 언어 사용 활동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발달 요인은 학생들이 사려 깊은 독자로서 어떻게 성장·발달해 가야 하는지와 연관되는 요인이다. 사려 깊은 독자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학생들은 내용적 지식과 일련의 전략을 축적해 나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읽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들 지식과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 읽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언어를 명료하게, 전략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해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읽기 활동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언어의 관습에 관한 지식과 이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나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신장해 나가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읽기 활동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읽기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은 언어의 구조와 의미와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읽기 활동은 특정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은 읽기 활동 능력의 학습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읽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은 텍스트와 학생들 자신과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학생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는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 즉 철학적 윤리적 심미적 측면 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시기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작품의 유형과 양은 합리적인 수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감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전략은 학생들 자신의 경험, 다른 독자 및 필자와의 상호작용, 단어의 의미 및 다른 텍스트에 대한 지식,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문어 텍스트와 비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언어의 구조, 언어 관습, 매체 이용 기법, 비유적 언어, 장르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들 지식을 읽기 활동의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 자원 및 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은 문화, 지역, 사회적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어 사용의 방식이나 유형 혹은 방언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유식하고 사려 깊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

읽기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학습은 개인적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읽기 학습은 인지적 작용임과 동시에 지식의 사회적 구성 작용이다. 학습과 발달에 주된 관심을 갖는 사회문화이론가들은 문화적으로 조직되고 사회적으로 중재된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문화이론의 특징은 고립된 개인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으로 분석의 단위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사회문화이론가들은 학습과 발달이 특정 사회문화 공동체에의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행위로서의 읽기 활동은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ogoff, 1995). 여기서 개인적 측면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가치, 신념 등을 포괄하는 측면으로서 개별 학생이나 지도 교사의 행위, 심리적 특성, 능력 등과 연관된다. 사회적 측면은 의사소통, 역할수행, 대화, 협동, 갈등, 지원, 평가 등을 포괄하는 측면으로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협동학습 등과 연결된다. 제도적 측면은 사회문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 언어, 규칙, 가치, 신념,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측면으로서 보편적인 사회·문화적 전통이나 규범과의 상호작용과 주로 연관된다.

사회문화이론가들은 학습과 발달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성을 중시한다. 읽기 활동 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발달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을 다 함께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읽기 학습은 읽기 활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읽기를 하는

지와 연관되는 실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읽기 학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읽기 학습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을 사회적·공적 측면, 사회적·사적 측면, 개인적·사적 측면, 개인적·공적 측면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Raphael, 2000),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 구성 측면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Schoenbach, Greenleaf, Cziko, & Hurwitz (1999)). Raphael의 분류는 'Vygotsy Space'를 이론적 기저로 하여 읽기 학습 현상을 공적·사적 축과 사회적·개인적 축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고, Schoenbach 등의 분류는 학교 현장에서 읽기 교육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주의 읽기 이론과 사회구성주의 읽기 이론을 통합하여 읽기 학습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읽기 학습의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 구성 측면, 상위인지적 대화 측면 등 다섯 가지 측면에 투영된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시하는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개인의 발달에 관한 사회적 기저를 중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은 학생들보다 더 나은 식견을 갖춘 사람의 중재 작용으로 인하여 촉진된다. 중재자는 학습자의 경험을 해석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의적 반응을 도와 준다. 읽기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재작용의 적용 방식과 시점, 교사 안내 활동과 학생 주도 활동의 균형 유지 방식,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평가 방식 등을 결정하는 일이다.

읽기 학습은 학생들이 읽기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난관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잠재적 자원으로 다른 학생들과 교사를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는 읽기의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학생들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닌 문제점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읽기 활동과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는 학생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동료 학생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읽기 학습의 개인적 측면은 개별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둔다. 교실 내에서의 읽기 활동은 개별 학생들로 하여금 독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하게 해 주고, 학생들 자신의 목표와 동기, 기호, 희망,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을 개발하고 정교하게 가다듬는 기능을 하게 된다. 개별 학생들이 독자로서의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읽기 과정,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반응, 질문과 해석 등과 같은 교실 토론의 풍성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교실이라는 읽기 공동체를 살찌우게 된다.

읽기 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의 총체적 인지 전략에 초점을 둔다. 1970년대 이후 능숙한 독자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지 전략들이 밝혀졌다. 읽기 과정에서의 인지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전략들은 자신의 읽기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이들 인지 전략들을 습득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에서 이들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독해 과정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갖게 된다.

텍스트에 제시된 아이디어의 세계에 관한 지식, 텍스트의 조직 방식에 관한 지식, 텍스트에 나타난 사고 방식과 언어 사용 방식에 관한 지식 등은 독해 과정 자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읽기 행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충된다. 읽기에 있어서의 능숙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텍스트의 주제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아이

디어와 자신의 기존 지식을 연결짓고 더욱 정교화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 장르의 관습과 필자가 제공하는 텍스트 표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학문 분야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징적인 사고 양식과 읽기 방식에 대한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관한 지식, 텍스트에 관한 지식, 학문 분야별 특징적인 사고 양식에 관한 지식 등은 독해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읽기 학습의 과정에서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 구성 측면 등 네 측면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작용이 바로 상위인지적 대화이다. 상위인지는 사고에 관한 사고, 즉 자신의 인지 과정과 결과 혹은 그와 연관되는 것들에 관하여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종의 질차적 지식으로서 지식과 기능의 유연한 활용과 심층 학습의 핵심 요소가 된다. 상위인지적 대화는 읽기 활동과 연관되는 사회적 환경 및 교실 자원, 인지 작용,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의 유형 등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외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내적 대화는 독자 자신의 읽기 과정, 읽기 전략, 지식 자원, 동기,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및 정의적 반응 등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고, 외적 대화는 위의 사항들에 대한 지도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의 대화이다. 상위인지적 대화는 반성적 사고임과 동시에 회귀적 사고이다. 상위인지적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신의 읽기 전략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음미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상위인지적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읽기의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 구성 측면들 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게 된다.

읽기 학습의 근원적인 목적은 지식의 생산 능력과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투철한 가치관과 건전한 인성 등을 함양해 나가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구성주의 읽기 이론에서는 읽기 학습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 읽기 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읽기 학습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 구성 측면, 상위인지적 대화 측면 등 다섯 가지 측면 모두가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3. 21세기의 문식성과 읽기교육의 과제

읽기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어활동과 인간의 정신작용을 두루 포섭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언어와 문어활동에 대한 담화 중심의 사회·문화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인간 정신을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를 투영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의미는 언제나 구체적 사회·문화적 활동과 경험 속에 자리잡게 되며, 사람들은 읽기 활동의 과정에서 세계와 텍스트에 관한 상황 의존적 경험을 조직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읽기교육 연구는 그 방법론 면에서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어 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읽기교육 연구의 주종을 이루었던 행동주의적 연구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지주의적 연구에 그 주류를 넘겨주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회·문화적 연구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Gaffney & Anderson, 2000). 언어와 문어활동에 대한 최근 연구의 특징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영역 간 통합 및 수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지와 맥락, 기능과 의미, 형식적 구조와 의사소통적 기능, 개인과 사회 등과 같은 대립적 관점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담화 연구와 사회문화적 연구 분야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Gee(2000)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기술적 방법론에 의하면, 사회적이거나 제도적인 규칙과 질서는 그러한 규칙과 질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순간순간의 사회적 언어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안다는 것은 구체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일과 직결된다. 기억, 정서, 해석, 의도 등의 정신작용은 단순히 머리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협상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구성된다.

말하기에 대한 문화기술연구에 의하면,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적이고 탈맥락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언어활동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은 연관되는 맥락이 무엇이며, 그 맥락이 단어들의 의미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를 짐작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들 맥락적인 단서의 형식과 의미는 문화와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다.

사회역사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 정신은 이미지와 패턴과 단어들의 내면화와 적정화 과정을 통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제공된다. 사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조형물, 기호, 도구, 기술, 그리고 일정한 기능의 수행과 의미전달을 위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언어 형식에 의하여 중재된다. 안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활동에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와 연관되고, 배운다는 것은 참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정도의 여부와 연관된다.

문화모형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로 목시적 이론이나 문화적 모형을 적용하여 그들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든다. 여기서 문화모형이론은 스키마이론의 사회적 확대판으로서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화집단 혹은 사회집단의 공유된 규범에 의해 설명하는, 단순화되고도 전형화된 논증, 이미지, 이야기, 은유적 정교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 또는 이론은 인간의 머리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활동이나 텍스트, 그리고 다양한 매체 속에 실재하는 것으로서 인간행위를 안내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알리고 언어 활동의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인지언어학적 연구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은유와 다양한 비유적 장치로 구성된 복합적, 혼성적, 교섭적, 중복적 체계이다. 은유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은 물론 우리 자신과 물질과 사회와 문화적 세계에 대하여 사고하는 방식을 형성해 준다.

사회문화적 문어활동 연구에 의하면 읽기와 쓰기 활동은 언제나 이질적이고도 다중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들 다중적 문어활동은 특정의 사회문화적 활동 속에 실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인 문어활동은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특징적인 기준, 가치, 신념과 연결된다.

인간 정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인간 정신은 어떤 자료나 경험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유형인식자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규칙을 따르게 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가 자신에게 잠정적으로 의미있는 유형으로 다가왔을 때, 인간정신은 일정한 유형을 찾기 위해 작동한다. 이 때, 그 무엇이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인간 정신을 안내하고 조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읽기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의 독해 과정 안내, 우수한 동료학생의 안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과정 중심 안내 등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된다 (Greeno, 1997). 인간의 사고는 다른 사람, 기호, 도구, 대상 기술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분포된다. 인간의 인지, 지식, 가치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통하여 다양하게 분포된다는 관점은 교실 내에서의 공동체 학습의 이론적 기저가 된다 (Brown & Campione, 1994).

생각한다는 것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세계 내에서의 인간 행동을 위해 필요한 상황적 의미를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조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합과 조립 활동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집단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상황적 의미는 매우 역동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스키마를 확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읽기활동처럼 문어 텍스트와 연관되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활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읽기활동에 있어서의 상황적 의미는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 정보(하위 수준)와, 텍스트 전체를 구성하는 일반적 주제(상위 수준) 사이에 가로놓인다. 개별 독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상황적 의미는 이 두 수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문어활동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단일하거나 통일된 읽기 활동 보다는 다양하고도 상황 의존적 읽기활동을 중시한다. 텍스트와 세계 속의 의미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경험 속에 자리잡게 되는데, 읽기교육의 장에서 이러한 경험은 지도교사와 동료학생들에 의해 안내되고 지지되고 규준화되어야 한다. 실제 세계와 직결되는 사고와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읽기란 존재할 수 없다. 읽기 활동은 어떤 구체적인 문어활동 상황에서 상황 의존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립하고 조합하는 활동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앞으로의 읽기교육 연구는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시하는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학습은 읽기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분야이다. 텍스트 학습은 비단 교실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사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과서의 내용을 암송하고 기억하기 위주의 텍스트 학습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보화 시대의 텍스트 학습에서는 교과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적절하게 조직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는 일, 적은 양을 학습하되 깊이 있게 학습하는 일, 학생들의 경험세계와 연관하여 실제적이고 상관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일, 새로운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 텍스트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시하는 일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 학습이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특성과 질과 장르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조적 텍스트의 학습 전략뿐만 아니라 비선조적 텍스트의 학습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텍스트 학습의 동기를 강화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 실제적 상호작용, 자율성의 지원, 흥미있는 텍스트, 지도 및 학습 전략, 협동, 칭찬과 보상, 일관성 있는 평가, 교사의 적절한 관여 수준, 지도 과정의 일관성 등의 요인에 대한 치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IV. 21세기 문식성(文識性)과 쓰기 교육의 과제

### 1. 쓰기교육의 새로운 방향

쓰기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쓰기 활동 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쓰기 활동 능력을 갖춘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을 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쓰기 활동 능력의 기준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서로 달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쓰기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쓰기교육에 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통 분모를 추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장차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쓰기 활동 능력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쓰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쓰기 과목은 과목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에서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어 능력은 유의미한 활동과 상황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쓰기교육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육행정가, 교육정책 수립자 등 우리 교육의 미래와 쓰기교육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시각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쓰기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을 위한 언어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쓰기 활동 능력에 대한 기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의 시민들이 자신의 사회와 직장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쓰기 활동 능력과 함께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식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에게는 1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을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쓰기 활동 능력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는 물론이고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상업적 및 정치적 광고, 사진 등과 같은 전자매체 언어와 시각 언어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적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쓰기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쓰기 활동 능력의 학습은 내용, 목적, 발달, 상황의 네 가지 특징적인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를 쓰기교육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쓰기 활동 능력 학습의 네 가지 측면, 즉 내용 측면, 목표 측면, 발달 측면, 상황 측면 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쓰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쓰기에 관하여 학습함과 아울러 텍스트에 대하여 학습하고 텍스트와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와 시각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이 쓰기에 관하여 학습하게 되는 텍스트는 간단한 담화에서부터 복잡한 형식의 글의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어떤 특정 텍스트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쓰기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수용함과 아울러 그들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쓰기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다.

쓰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쓰기능력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장하고 확장해 나가게 된다. 쓰기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능적 문식력과 비판적 문식력을 계발해 나간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문화 공동체가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쓰기 활동의 기본적인 관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학습함과 아울러 자신과 타인의 언어 사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추하는 법을 학습한다.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쓰기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공동체 내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쓰기 능력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일과 사회생활의 특성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고 상이한 의사소통 형식이 다양하고도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쓰기는 모든 시간과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이며 변화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일련의 규칙이나 활동이 아니다. 20세기 초의 한국

사회에서 효과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했던 쓰기 기능들만으로는 21세기 초의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는 문식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상황에서 요구되는 문식력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문식력 수준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식 상황과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쓰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쓰기 활동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쓰기 과목은 텍스트 생산을 위한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식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쓰기교육을 통하여 신장해야 할 기능적 문식력은 언어 공동체에 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채택되고 있는 언어 관습을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언어 관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언어 관습에는 글씨쓰기, 맞춤법, 문법에서부터 언어 사용의 목적 및 대상과 맥락과 연관되는 언어 사용 형식과 장르와 양식 등과 연관되는 관습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향유와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시 방식과 연관되는 관습, 여러 유형의 문학 텍스트와 연관되는 관습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과 태도를 소통하기 위하여, 점점 복잡해져 가는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급속하게 증대되는 새로운 지식과 사고 양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언어 관습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능적 문식력과 함께 비판적 문식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판적 문식력의 습득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국어가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 조건에 반응하는 역동적 사회화 과정임을 이해함과 아울러 국어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가치, 신념, 사고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판적 문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물론 의사소통 의미의 맥락 목적 대상에의 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비판적 문식력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와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잘 발달된 언어 사용 기능은 지식을 통하여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조정 기능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힘을 제공한다. 언어는 학생들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언어와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다. 쓰기 교육을 통한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의 개발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사려 깊고 적절하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줌과 아울러 지식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 2.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

21세기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술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쓰기지도를 위해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동기 강화, 지도 교사가 강조하는 특정 전략의 명료화, 다른 가능한 접근 방식에 비해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보완이 용이하다는 점, 협동학습의 기회 제공, 학습의 사회적 특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한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컴퓨터 자판 익히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문어 중심 문식교육에 있어서의 글씨쓰기 연습과 비슷한 차원에서 컴퓨터 자판 익히기 연습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컴퓨터 자판 익히기 연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텍스트 입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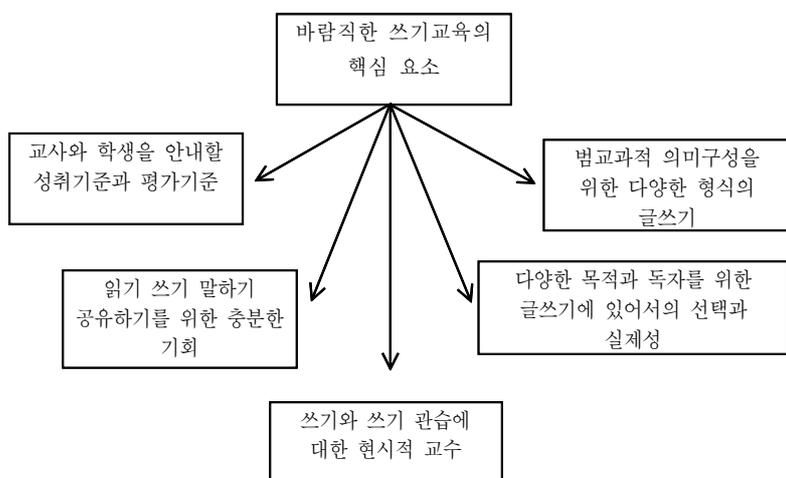
컴퓨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 시판 중인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픽과 클립아트의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과의 연결이 가능한 개선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쓰기를 도와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 입력에 주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텍스트 입력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통합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텍스트 입력 및 창의성 이외에도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여 완결된 텍스트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즉 텍스트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음성 입력 장치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문식력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능적 문식력은 서적, 신문, 잡지, 정부 문서, 제품 사용을 위한 매뉴얼 등과 같은 인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능적 문식력의 개념에는 정보 기술의 이용 능력이 포함되게 되었다. 온라인 주소가 보편화 되었으며 신문과 방송의 광고문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기관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한 등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능적 문식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 기술은 독서 자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독서 행위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텍스트와 전자텍스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이퍼텍스트의 경우 독자는 대단위의 덩어리 사이나 텍스트의 작은 부분들 사이를 신속하게 오가야 하며, 음성, 비디오, 동영상, 사진, 그림 등의 자료가 텍스트에 대한 정보처리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텍스트와 그래픽이 결합된 다매체 형식의 전자텍스트는 국어과와 미술과의 상호 연관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에게 있어서 전자텍스트는 대단히 효과적인 형식의 언어적 시각적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전자텍스트의 처리 능력은 기능적 문식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바람직한 쓰기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교사와 학생을 안내할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쓰기와 쓰기 관습에 대한 현시적 교수, 독서 쓰기 말하기 공유하기를 위한 충분한 기회, 범교과적 의미구성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 있어서의 선택과 실제성 등의 다섯 가지를 선정할 수 있다 (Bromley, 1999). 이들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핵심 요소

교사와 학생을 안내할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쓰기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기준과 교사 수준에서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가? 학생들의 쓰기에서 예상 독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 학생들이 무엇을 써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쓰기는 범교과적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쓰기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학생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시적 교수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가? 좋은 쓰기에 대한 모델과 촉진을 위하여 문학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쓰기에 대한 관습이 의미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쓰기와 쓰기 관습에 대한 현시적 교수를 위해서는 쓰기의 일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목적과 대상과 상황의 실제적인 쓰기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성, 창의성, 의미, 표준적 형식, 언어에 대한 관습 등에 대한 강조와 격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공유하기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쓰기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워크숍의 외양 요인으로서 정중함, 말없이 작업에 임함, 조용하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함, 긴밀하게 서로 협조함, 쓰기에 몰두함, 독서에 몰두함 등을 들 수 있고, 바람직한 워크숍의 형태 요인으로서 조용하지만 침묵하지 않음,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지 않음, 명료한 언어 사용, 불쾌한 소음이 없음, 의견을 공유하는 동안 열심히 들음, 좋은 질문을 던짐 등을 들 수 있다.

범교과적 의미구성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에 있어서의 범교과적 쓰기 활동은 학년 수준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글쓰기, 내용조직도를 활용한 글쓰기, 신문기사 형식의 글쓰기 등은 모두 범교과적 쓰기 활동을 위해 유용한 형식의 글쓰기 활동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위한 글쓰기는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유창성과 독립성과 자질을 신장해 준다.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보 기술은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위한 글쓰기의 실제적 기회와 선택을 도와준다. 컴퓨터, 시디롬, 인터넷 등의 활용으로 학생들은 전통적인 인쇄매체에서 벗어나 그림과 동영상과 소리로 구성된 하이퍼텍스트를 보고 평가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

넷 상의 글쓰기는 독서와 쓰기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보기와 수집하기와 해석하기와 분석하기 등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술을 이용한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온라인 쓰기 실습실의 활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기술이 쓰기 능력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온라인 쓰기 실습실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 기술의 한 형태이다. 온라인 소통 혹은 실시간 소통은 1960년대의 PLATO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온라인 쓰기 실습실에 실제로 참여해 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풍성한 독서와 쓰기 활동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uce, 2003). 온라인 쓰기 실습실을 실제의 교실 수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수히 많다.

기술을 이용한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하이퍼미디어의 활용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이퍼미디어는 참여자로 하여금 상호작용적인 매체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결합시킨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참여자로 하여금 멀티미디어를 통한 선택적 통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참여자는 하이퍼미디어를 상호작용적으로 구성하고 반응할 수 있다. 최근 하이퍼미디어를 창안하는 데 이용되는 일련의 기술적 도구들이 급속하게 개발됨에 따라 쓰기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더욱 심화되고 다양해졌다

사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진행시켜 나가는 기호적 상호작용은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암묵적인 기호적 도구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정체성, 관계, 인식된 가치 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비판적 문식 행위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목적과 방법을 규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활동 속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판적 문식행위의 일환으로 하이퍼미디어를 구성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하이퍼미디어 구성 지도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와 기호와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로서의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지를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하이퍼미디어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몰입하기, 식별하기, 맥락화하기, 표상하기, 비판하기, 변형하기 등의 여섯 가지 전략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Myers & Beach, 2003).

몰입하기 전략은 사회적 세계의 활동 속으로 들어가서 참여자로서 그 사회적 세계를 경험하고 관찰하기 위한 전략이다. 식별하기 전략은 사회적 세계에서 야기되는 관심사 주요 문제 딜레마 갈등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전략이다. 맥락화하기 전략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세계에서 사용된 행위와 기호와 텍스트가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즉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목적, 역할, 신념, 전통 등과 같은 요소 들을 생산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이다. 표상하기 전략은 살아있는 사회적 세계를 표상하거나 표상된 사회적 세계에 반응하는 텍스트를 창안하기 위한 기호적 도구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비판하기 전략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어떤 특정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어떤 사회적 세계 내에서의 특정 문식 활동이 어떤 의미를 촉진하고 다른 가능성을 주변화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변형하기 전략은 어떤 사회적 세계 내에서 더욱 바람직한 정체성과 관계와 가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세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수정하고 자신의 행위와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을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쓰기교육의 내용 범주와 학년별 성취 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호주와 캘리포니아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쓰기 교육의 내용 범주와 고등학교 고학년의 성취 기준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쓰기교육의 내용 범주는 장르별 쓰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쓰기, 쓰기

관습의 활용, 쓰기 전략의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쓰기교육의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상이한 목적과 독자에게 맞추기 위하여 어조와 표현 양식에 관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쓰기의 관습에 관하여 거의 완벽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관습적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쓰기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쓰기 과정과 전략과 다른 사람의 쓰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장르별 쓰기’의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문어 텍스트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복잡성, 복합성, 다양성, 통제성 등을 점진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구체적인 주제, 복잡하고도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확실하고 생생하게 글을 쓰고 서로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상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요 문제를 드러내는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도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연관되는 특정 주제에 관한 글을 쓸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적 목소리를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쓰기’의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언어가 적절하게 달라지는 방식은 물론 학생들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하여 언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비판적 의식을 계발해나가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독자와 목적에 맞추기 위한 비판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언어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반작용, 질문, 오해, 반대, 대응논리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적절하고도 절실한 개인적 목소리를 설정하고 보류할 수 있어야 하며, 심미적, 수사학적, 이념적 영향을 위하여 근본적인 관습을 적용하거나 수정하거나 혼합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입장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의미의 구성에 참여하는 독자의 역량을 인식하여야 하며,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의 간극을 메우고 적절한 반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 관습의 활용’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비판적 안목에서 문어 텍스트의 관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의미의 생생하고도 간결한 전달을 위하여 언어 구조와 리듬, 어조, 뉴앙스 등의 언어 자질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신선하고 생생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독자에 대한 영향과 표현상의 보조를 위하여 구절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를 유창하고도 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복잡한 통사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강력한 결론과 해결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절차와 요소들로 구성된, 통일적이고 일관적이고 유창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 전략의 활용’ 내용 범주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언어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적절한 과정과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쓰기의 실제적 과정에서 쓰기 전략과 과정을 비판적이고도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쓰기와 다른 사람의 쓰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과정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목적, 주제, 내용, 구조, 개성, 목소리, 독자 참여 등의 문제를 한정하거나 확장하거나 정교화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하여 쓰기 과정에서의 단계들을 회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전략적이거나 수사학적 효과를 위하여 외부 자료로부터 아이디어와 정보를 사용하며, 정확성 다양성, 간결성, 내용 전개상의 영향, 독자 반응 등을 위하여 단어와 문장과 문단과 텍스트 전체 수준에서 수정과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V. 문식성(文識性)과 격조(格調)

지금까지 21세기의 문식성의 개념과 특성, 21세기 문식성과 읽기 교육 및 쓰기 교육의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식성의 개념 측면에서는 문식성이 단순히 어떤 특정의 텍스트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식성은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의 읽기와 쓰기와 연관되는 사고의 양식임과 동시에 목표 지향적인 활동임과 아울러 사회적 맥락과 언어 사용 활동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이 지닌 의미와 특성 측면에서는 21세기 사회의 특성과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이 지닌 의미와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과학기술과 직업과 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21세기의 문식성이 지닌 특성을 기술적 문식성, 정보 문식성, 매체 창의성, 사회적 능력과 책임 등의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읽기교육의 근원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생산 능력과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투철한 가치관과 건전한 인성 등을 함양하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구성주의 읽기 이론에서는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읽기 교육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읽기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읽기교육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읽기 학습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정리해 보고, 읽기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접근 양상을 간단히 개관해 보았다.

쓰기교육의 과제는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설정해 보았다. 쓰기 교육을 통한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의 계발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사려 깊고 적절하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ICT 문식력과 함께 비판적 문식력의 신장을 쓰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보았다.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기술을 이용한 쓰기교육을 중시하였다. 기술을 이용한 쓰기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전자텍스트 생산하기, 온라인 쓰기 실습실의 활용, 하이퍼미디어의 활용 등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바람직한 쓰기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교사와 학생을 안내할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쓰기와 쓰기 관습에 대한 현시적 교수, 독서 쓰기 말하기 공유하기를 위한 충분한 기회, 범교과적 의미구성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다양한 목적과 독자를 위한 글쓰기에 있어서의 선택과 실제성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의 방식과 함께 문식 활동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이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어 활동 능력과 함께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식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식력은 일련의 기술적 기능들의 집합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능력, 미래에 대한 통찰력,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인간성과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한 격조 높은 삶의 양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과학기술부 (1999)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
- 박영목 (2002) 독서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접근, 독서연구, 7호, 한국독서학회.
- 박영목 (2003) 21세기의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영목 (2005)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사회에 대비한 작문교육의 방향과 내용, 국어교육, 11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21st Century Literacy Summit. (2002). *White paper: 21st century literacy in a convergent media world*. Bertelsmann Foundation & AOL Time Warner Foundation
- Bazerman, C. (Ed.). (2008). *Handbook of research on writing*. New York: LEA.
- Boden, M.A. (1988). *Computer model of mind*. NY: Cambridge U. Press.
- Bromley, K. (1999). Key components of sound writing instruction. In L. Gambrell, L. Morrow, S. Neuman, & M. Pressley (Eds.), *Best practices in literacy instruction*. NY: Guilford.
- Brown, A.L., & Campione, J.C. (1994). Guided discovery in a community of learners. In K. McGilly (ed.), *Classroom lessons: Integrating cognitiv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MA: MIT Press.
- Bruce, B.C. (Ed.). (2003).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DE: IRA.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988). *English Language Arts Cont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CA: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Curriculum Council. (2005). *Curriculum Framework Progress Maps-English*. Western Australia.
- Durant C., & Green, B. (2001). Literacy and the new technologies in school education. In H. Fehring & P. Green (Eds.), *Critical literacy*. DE: IRA.
- Gaffney J.S., & Anderson, R.C. (2000). Trends in reading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In M.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NJ: LEA.
- Gambrell, L. Morrow, L., Neuman, S., & Pressley M. (Eds.), (1999). *Best practices in literacy instruction*. NY: Guilford.
- Gavelek, J. R. (1986). The social context of literacy and school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 E. Raphael (Ed.), *The contexts of school-based literacy* (pp. 3-26). New York: Random House.
- Gavelek, J. R., & Raphael, T. E. (1996). Changing talk about text: New roles for teachers and students. *Language Arts*, 73(3), 182-192.
- Gee, J. P. (2000). Discourse and sociocultural studies in reading. In M.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NJ: LEA.
- Graff, H. J. (1995). *The Labyrinths of Literac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reeno, J.G. (1997). Response: On claims that answer the wrong questions, *Educational Researcher*, 26, 5-17.
- Gumperz, J. J. (1986). "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in the Study of Schooling". In J. Cook-Gumperz (Ed.). *The Social Construction of Lite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ther, F., & Green, P. (Eds.) (2001). *Critical literacy*. DE: IRA.
- International ICT Literacy Panel. (2004). *Digital Transformation: A Framework for ICT Literacy*. ETS.
- IRA & NCTE. (1996). *Standards for the English language arts*. IRA & NCTE.

- Irwin, J. S. (2007).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es*.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Kjos, B. (2002). *Redefining "Literacy" for a New World Order*. (<http://www.crossroad.to/index.html>)
- Langer, J. A. (1987).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on Literacy". In J.A. Langer (Ed.) *Language, Literacy and Culture: Issues of Society and Schooling*. NJ: Ablex Publishing.
- Macarthur, C., Graham, S. & Fitzgerald, J. (Eds.). (2006).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Hew York: The Guilford Press.
- Myers, J., & Beach, R. (2003). Hypermedia authoring as critical literacy. In Bruce, B.C. (Ed.).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DE: IRA.
-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Skills. (2005). *Learning for 21st century*. [www.21stcenturyskills.org](http://www.21stcenturyskills.org)
- Pugh, S. L., Hicks, J. W., & Davis, M. (1997). *Metaphorical way of knowing*. NCTE.
- Raphael, T.E. (2000). Balancing literature and instruction. In B.M. Taylor, M.F. Graves, & P. van den Broek (eds.), *Reading for meaning*. IRA
- Rogoff, B. (1995). Observing sociocultural activity on three planes: Participatory appropriation, guided participation, and apprenticeship. In J. V. Wertsch, P. Del Rio, & A. Alvarez (Eds.), *Sociocultural studie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eda, R., MacGillivray, L., Monzo, L., & Arzubiaga, A. (2001) *Engaged Reading: A multilevel approach to considering sociocultural factors with diverse learners* (CIERA Report 1-012). MI: Center for the Improvement of Early Reading Achievement, University of Michigan.
- Schoenbach, R. Greenleaf, C., Cziko, C., & Hurwitz, L. (1999). *Reading for understanding: A guide to improving rea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classrooms*. CA: Jossey-Bass Publishers.
- Scribner, S. & Cole, M. (1981). *The Psychology of Lite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magorinsky, P. (Ed). (2006). *Research on composi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treet, B. V. (1995). *Social Literacies*. London: Longman.
- Sullivan, J.E., & Sharp, J. (2000). Using technology for writing development. In S.B. Wepner, W.J Valmont, & R. Thurlow (Eds.), *Linking literacy and technology*. DE: IRA.
- Vygotsky, L.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 Tran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S. (1986). *Thought and language* (A. Kozulin, Trans.). MA: MIT Press.